



부산광역시회 **일거리 창출 위해** 김재업 회장 **서로 돕는 따뜻한 부산시회**

전국 시·도회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개최된 총회를 통해 제9대 시·도회장을 새롭게 구성하고 각 지역에서 설비건설업계 및 협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에 본지는 전국 시·도회장으로부터 사업계획을 듣는 코너를 지난 호부터 연재하고 있다. 이번 호에는 김재업 부산시회 회장으로부터 부산시회의 사업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계획을 들었다. 제8대에 이어 제9대까지 연임 중인 김재업 회장은 과묵하지만 회원사를 살뜰히 챙기는 자상함으로 가족같은 부산시회를 이끌고 있다. [편집자 주]

**제8대에 이어 제9대까지 재임되었습니다.
재임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부산은 풍부한 해양자원을 바탕으로 환태평양의 물류, 정보, 금융, 관광 중심의 명실상부한 국제교류 거점으로서 동북아 해양수도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은 크게 국제금융, 무역, 정보 기능의 부산도심권과 첨단산업, 항만, 공항 물류 기능의 강서지역권, 자연친화적 관광 기능의 기장지역권 등 3개 권역으로 나뉘어서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섬 관광단지, 동부관광단지 서부지구를 비롯한 국제비즈니스 도시 등 상업단지와 공업단지가 많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지만 부산지역은 최근들어 분양률이 높아지면서 회복 추세에 있으며 앞으로 10년 정도 건설경기가 활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며 물가도 싸서 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곳이 부산입니다.

우리 부산시회는 지역도 넓지 않고 회원사 수도 409개 업체로 많지 않아서 가족처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지역은 서울 다음으로 시장이 큰 편이라 전국에서 업체들이 많이 몰려오는 곳이다 보니 부산지역 업체와 외지 업체 간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저는 제8대 회장에 취임하면서 회원사의 일감확보와 경영환경 개선사업에 최우선 과제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김광환 전임 회장님께서 전국 시도 최초로 건설산업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신 업적을 이어받아 조례 안에 지역공사의 60%를 지역 업체에게 하도급 줄 수 있도록 권고사항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제가 8대 회장에 취임한 2011년 부산지역 업체의 공사 참여 비율은 31% 정도였지만 지난해 57% 정도로 참여율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부산지역 회원사의 2013년 기성실적은 7천608억원을 기록하였고, 2011년부터 3년간 54%의 상승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부산시를 비롯한 산하 발주기관에 발이 닳도록 쫓아다니는 결과 부산지역 회원사의 공사수주 기회가 많아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회원사가 수익 창출을 위해 열심히 뛰었던 성과로 봐야겠지요.

이처럼 제가 별다른 과오 없이 8대 회장 임기를 잘 마무리 하고 9대 회장에 재임하게 된 것은 부산시회 회

원사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 덕분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년은 협회와 회원사를 알아가는 과정이었다면 재임기간에는 회원사와 협회가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힘을 쏟았습니다. 또한 활동이 미진한 회원사의 참여도를 높여서 회원사 모두가 정보를 공유하고 발전을 도모하는 협회를 만들도록 매진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부산시회 회원사 일감확보 사업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산시는 전국 최초로 지역 건설산업활성화 촉진 조례에 지역공사의 60%를 지역 업체에게 하도급 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그런데 토목, 건축 등을 총망라한 전체 공사의 60%이다 보니 정작 기계설비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우리시회의 노력으로 건축, 토목 등 다른 공사가 턱을 본 셈이지요. 이에 따라 우리시회는 기계설비부분만 별도로 하도급율을 조사해서 기계설비부분의 60%를 지역건설업체에 발주할 수 있도록 부산시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지역의 대형 사업인 동부산관광단지, 북항재개발, 에코델타시티 등의 공사에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등록 건설업자 신고센터 강화

전문공사는 1천5백만원 이상일 경우 건설업 등록을 한 업체가 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산지역에서는 무등록 업체가 수주하는 경향이 자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회는 무등록 건설업자 신고센터 기능을 강화하여 회원사의 일감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시공품질점검활동

우리시회는 발주자의 만족과 품질보장을 위해 지난 2004년 분리발주 현장점검위원회를 구성하여 우수한 현장은 포상하고 현장관리, 공정관리에 미진한 현장은 개선을 요구하여 품질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큰 공사 발주가 저조하여 한동안 활동이 주춤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1년 준공한 부

산시 영화의 전당 영상센터는 관급자재 포함 200억원 대 규모로 분리발주 되어 부산지역 업체 49%, 외지 업체들이 51%를 맡아서 공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외지 업체들은 부산지역 업체를 잘 모르다 보니 3개의 소규모 업체가 컨소시엄에 포함되어 공사를 맡았습니다. 그 때 부산지역 회원사들은 걱정을 많이 했어요. 역시 우려한 대로 그 업체들은 공사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많은 문제가 발생했어요. 현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니 부산지역 업체 전체가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결국 협회가 나서서 도와주고 하면서 마무리는 잘 되었지만 아직도 그 상처는 남아 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현장점검 활동이 유명무실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 다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공사든 성실시공을 해야 하지만 특히 분리발주 공사는 우리업계의 얼굴이라 생각하고 더욱 성실시공을 해야 합니다. 이렇듯 말썽이 생기면 협회는 분리발주를 주장하기가 무척 어려워집니다. 협회 차원에서 분리발주 현장을 몇 번이고 찾아가 품질에 신경을 써달라고 간곡히 요청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겪은 뒤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분리발주 시공업체에게 우리업계 전체를 위해 성실시공을 해달라고 당부합니다. 또한 외지 업체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할 때 책임감이 강한 지역 업체를 선택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대형 종합건설업체에 부산지역 회원사 협력업체 등록 요청

우리시회는 부산광역시장 명의의 협력업체 추천서를 대형 종합건설업체에 발송하여 부산지역 회원사가 대형 건설업체의 협력업체로 등록될 수 있도록 회원사의 경영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를 받거나 장기어음 지급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등 불법하도급 실태조사를 확대하여 불법하도급 유형을 적극 홍보하는 등 부산지역에서 공생발전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산지역 기계설비건설업계 발전을 위한 공동 노력

그동안 우리협회와 대한설비공학회 부·울·경지회, 한국건축친환경설비 영남학회, 한국설비기술협회 부·울·경지회 4개 단체는 기계설비기술세미나 개최 등 부산지역 기계설비 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

해왔습니다. 그러나 공통된 사업추진 필요성에 따라 연합회를 출범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사회 사무처 한쪽에 여직원 1명과 일할 공간을 마련하고 11월 3일에 개소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4개 단체 중 부산사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다 보니 연합회 회장은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새롭게 출범된 연합회를 중심으로 부산지역 기계설비기술자의 신기술, 신공법 습득 및 기능도 향상에 역점을 둔 사업추진은 물론 기계설비분야의 권익보호와 발전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최근들어 기계설비기술세미나에 부산시가 적극 참여함으로써 산·학·관의 교류를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부산지역 기계분야 공무원들은 기술세미나를 통해 우리업계의 현황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알찬 기술교육으로 부산시가 교육이수 시간으로 인정함에 따라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시는 우리업계의 세미나를 위해 강당도 빌려 주는 등 많은 관심과 함께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세미나를 통해 분리발주의 당위성을 인식하고 있어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열린 기계설비기술 세미나에는 서병수 부산시장님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을 뿐만 아니라 세미나 장 옆에 전시된 기계설비 관련 사진전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런 세미나를 통해 회원사 뿐만 아니라 공무원까지 자부심을 느끼는 것을 보면서 기계설비분야가 부쩍 성장했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부산지역 회원사는 물론이고 공무원과 각 단체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기계설비산업연구원이 내년 초 개원하면 기계설비의 위상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활발한 산학협력 활동

우리시회는 전국 시도회 중에서 산학협력을 가장 먼저 시작했습니다. 지난 96년 동명대학을 필두로 동의대학교 건축설비공학과와 처음으로 산학협력을 체결한 후 부산지역 기계설비관련 대학과 후진양성을 위한 장학금 지급, 현장실습 강화 등의 산학협력을 통해 우수한 학생이 우리업계에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 형편이 어렵지만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회원사 현장에 현장실습을 적극 유치하여 학생들의 실무능력 배양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 동안 천여명 이상의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통해 배

움을 익혔으며 그 중 열심히 일한 학생들은 회원사 직원으로 입사하여 지금은 어엿한 중견 간부로서 우리 업계의 버팀목이 되고 있지요. 지난 20여년 동안 꾸준히 산학협력을 실천하다 보니 교수들과의 관계도 돈독해져 토목이나 건축분야 교수들이 무척 부러워한다고 해요. 이렇듯 우리사회는 건설단체 중에서 산학협력의 훌륭한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봉사활동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을 좀더 긍정적이고 밝게 만들기 위해 우리사회는 불우이웃돕기를 비롯하여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급식비 지원 등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협회 활동 외에도 개인적으로 을숙도 철새도래지인 강서지역의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쓰레기 청소 등 환경활동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경제대국의 원동력이 되었던 새마을운동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봉사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본회와 연계하여 제도개선에 앞장

이밖에 본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분리발주 및 주계약자 공동도급이 확대 및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실적공사비제도 폐지,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제도개선, 건설공사 관급자재 물량축소, 표준품셈 및 일위대가표 신설 등의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부산지역 관계기관에 적극 건의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부산시 교육청에서 발주된 공사는 전체 공사의 63%를 관급자재가 차지하여 알맹이가 빠진 공사가 되었습니다. 껍데기 뿐인 공사를 해보야 채산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사회는 부산시 뿐만 아니라 지역 중소기업청, 부산상의, 교육청 등에 관급자재 제도개선을 끊임없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본회와 함께 각 지역

에서도 적극 건의한다면 조만간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회원사에 당부말씀

협회는 회원사의 권익보호와 경영활동 지원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나 회원사의 적극적인 협력이 없으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습니다. 저는 임기를 다하는 날까지 부산지역 기계설비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원사 여러분께서도 부산시회의 사업추진에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저가수주를 척결하지 않고서는 우리업계의 생존과 번영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규모가 작은 공사라도 저가수주를 하지 않을 때 이윤은 남게 마련입니다. 업체의 이윤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저가수주를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남은 임기 동안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 상부상조하는 협회 분위기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원사 여러분께서도 서로 존중하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 돕는 따뜻한 부산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원의 권익보호와 업무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부산사회 사무처 직원들(우로부터 강기윤 사무처장, 이상민 주임, 장희진 주임, 이동규 과장)

김재업 회장은

- 1952년생
- 대신산업설비(주) 대표이사(現)
- 부산공업전문대학교 전기과 졸업
- 부산대학교 산업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김해국제공항관리공단 근무
- 대한설비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제8대 회장 역임
- 부산상공회의소 의원(現)
- 부산광역시 건설발전위원회 위원(現)
- (사)미래건설포럼 임원(現)
- 새마을운동 부산강서구지회 회장(現)
-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대의원(現)